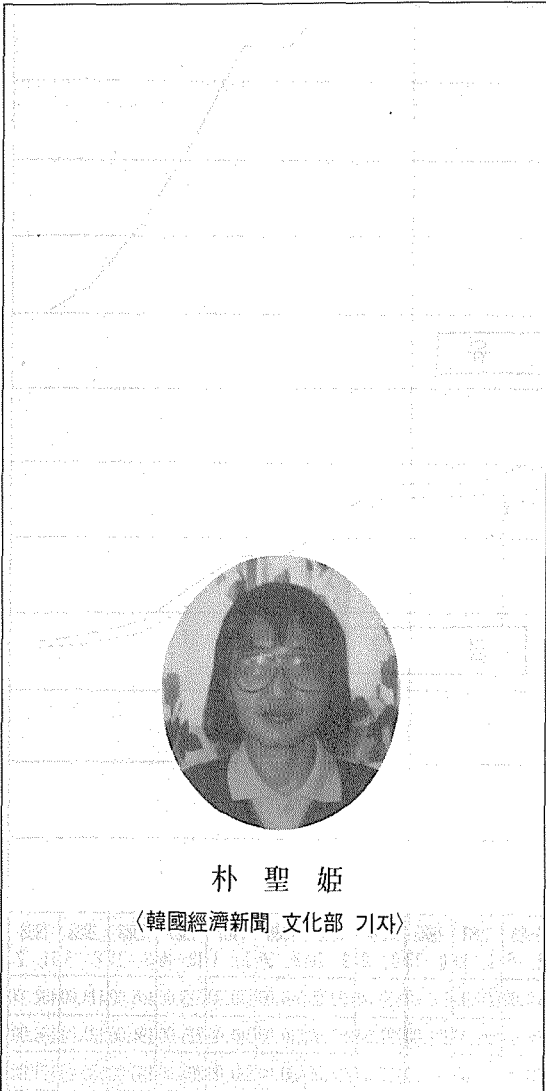


연탄보일러에서 기름 난방으로 바꾸고



朴聖姬

〈韓國經濟新聞 文化部 기자〉

기름값이 내렸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그 폭이야 어찌 됐건 모든 것이 오르기만 하는 마당에 내리는 것도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즐거운 일이다.

하물며 살고 있는 집의 난방용연료가 기름임에랴.

만 5년전 그러니까 83년11월 가까스로 장만했던 25평짜리 아파트를 『더이상 허공에서 살 수 없다는 비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shit가이하로 팔고 지금의 단독주택(전평 33평짜리다)으로 옮겨왔을 때 우리가족은 재산상의 손해이익 여부에 관계없이 행복했었다.

작지만 야외용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뜰이 있는 우리 식구만의 집(아파트는 우리만의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었다)을 갖게 됐다는 사실에 흥분해 공연히 집 안팎을 들락거리며 좋아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나는 우리의 이사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본시 어두운 것과 추운 것을 잘 참지 못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없이 덜덜 떨고 지냈는데 결과는 한달 기름값만 22만원이 넘고 있었다. 당시 가정용경유 한 드럼이 5만4천원이었는데 집이 워낙 밝은 탓이었는지 한달에 네 드럼이 더 소요됐다. 어른들만이라면 모르지만 두 뉘이 안된 딸아이가 있었으므로 더이상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었다.

누구말처럼 잘난 체하다가 코가 깨져도 보통 깨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름값 20여만원에 전기·가스·방범·청소비를 합치면 주거광열비만 월 30만원이 넘었다.

이사하기 전까지 아파트에서 내던 비용은 관리비와 난방비 가스비 전기요금을 모두 합쳐 10만원내외였는데 30

만원이 모자란다는 사실은 내게 후회의 정도를 넘어 다른식구에 대한 죄책감까지 갖게 했다.

더구나 어쩌다가 아파트에 사는 남편친구부인이나 내 쪽친구들을 만나 생활비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남들은 한달에 10만원 아무리 많아도 15만원내외(35평 아파트에 사는 경우)의 비용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나는데 은행빚을 얻어 겨우 집을 마련한 형편에 주거광열비만 30만원을 넘게 쓰고 그것도 부족해 식구들에게 더운물 한번 마음 놓고 못쓰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아야지, 콘크리트 닭장같은 아파트가 뭐냐』며 이사하자고 우겼던 내 행동이 도대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게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어쩌랴. 다시금 아파트로 이사하랴 수도 없고, 눈물을 머금고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는 도리밖에. 지금 돌이켜봐도 그해 겨울처럼 길게 느껴졌던 겨울은 없었던 듯 싶다.

후회와 자책으로 겨울을 난 뒤 봄을 지나 여름, 정확하게 84년 7월 우리는 집수리를 했다. 당초 계획은 주방 쪽과 식당쪽의 바닥높이가 다른 것을 같게 하고 주방쪽에 딸린 작은방과 식당의 난방시설을 연탄보일러로 하는 것이었다.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기름과 연탄을 병용, 난방비를 줄이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공사도중 계획은 변경됐다. 보일러공사를 맡았던 측에서 연탄보일러보다는 새로 인기를 끌고 있는 봉명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해온 까닭이었다.

보일러값은 비싸지만(70만원이라고 했다) 일단 설치하면 기름을 사용하는 것보다 난방비가 훨씬 절약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봉명보일러용 유연탄 한포(밀가루푸대크기)의 값은 2천5백원. 한겨울 가장 추울 때도 하루 두 포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달에 60포, 값은 15만원이면 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기름값의 60%정도 비용을 온종일 더운물을 쓸 수 있고 연탄처럼 한밤중이나 새벽에 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렸다.

70만원이라는 목돈이 마음에 걸렸지만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다시 한겨울 내내 마음을 졸일 일과 연탄같이냉나라 해야할 수고를 감안,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84년 겨울 우리집의 난방비는 83년의 절

반이 조금 넘는 15만원선으로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85년 봉명탄의 값이 한포당 2천5백원에서 2천7백원으로 오르면서 문제는 다소 달라졌다. 월12만원에서 15만원가량 되던 봉명탄값이 17만원 가까이 오르자 기름에 비해 불편한 점 즉 하루 한차례 이상 무거운 탄부대를 연료통에 들어부어야 하는 일과 먼지 나는 재를 치워야 하는 일이 크게 확대되어 다가왔던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기름을 뭘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봉명탄을 사용할 것인가. 결론은 그대로 봉명탄을 쓰자는 쪽이었다. 기름이 편리하기야 하지만 아무래도 온종일 뭘 수가 없고 따라서 더운물 사용등에 제약이 많다는 점 때문이었다.

언젠가 좀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기름을 쓰자는 것이 우리식구 모두의 생각이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여름에만 이집에서 살고 겨울엔 어디 아파트에 가서 살았으면』 하고 바라면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여섯번째 가을을 맞았다.

난방을 시작해야 하는 9월말이 됐을 때 우리식구는, 아니 남편과 나는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올 겨울에는 봉명탄이 아닌 기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더이상 봉명탄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실은 그간에 있었던 몇차례 유가인하조치로 기름값이 예전의 30%이상 싸졌다는 점이 고려됐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11월 2일 정부의 4%의 유가인하 조치 발표시 각 신문을 통해 알려진 인하전 가정용 경유소매가는 1드럼당 3만7천원. 인하효과는 1.7%로 6백원가량 싸질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9월말 당시 서울시내 일반가정에 판매된 경유 가격은 1드럼당 3만5천원선이었다.

네 드럼을 구입한 후 온라인으로 보낸 총액이 14만원. 예전 같으면 세드럼값도 안될 뿐만 아니라 봉명탄값과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올 겨울을 기름보일러로 나자는 결심을 하게 했던 것이다. 비록 하루종일 켜 놓을 수 없고 따라서 1·2월엔 다소 춥게 지내거나 아니면 무리한 지출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방안에서 스위치 하나로 켜고 끌 수 있고 필요치 않을 때는 꺼도 되며 재를 청소해야 하는 등의 힘든 일을 안해도 되니 그게 어딘가.

사실 한밤중이나 새벽녘에 일어나 연탄을 갈아야하는

일의 괴로움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루나 이틀에 한 차례씩 탄을 부어주기만 하는 봉명 보일러의 경우도 탄을 넣을 때마다 옷이 온통 시커멓게 되는 것은 물론 콧속이나 입속으로 들어간 탄가루가 재채기를 하게 한다. 재를 치우고 나면 머리를 감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 된다.

결국 주부의 노동을 생각하면 기름만큼 편리한 연료는 없다. 물론 요사이 가스가 새로운 난방연료로 각광받고 있지만 편리도면에서는 기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많은 가정의 기름을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름이 비싸다는 생각때문이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 주부의 고생은 현금이 나가지 않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일단 그날 그날의 지출액수가 조금이나마 적은 연탄이나 기타 유연탄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올들어 기름값은 모두 세차례 내렸다. 3월11일에 10.6%, 6월8일에 5.8%, 그리고 이번 11월2일 0시에 4.7%씩 내렸으니 모두 21.1%가 인하된 셈이다.

더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내릴 수 있는데 안내린

다고 공격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인하요인은 있지만 세계유가라는 것이 언제 다시 오를 지 모르는데다가 더 이상 인하했을 경우 일반가정의 연료대체로 석탄산업종사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니 그정도선이면 됐다고 얘기한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기름값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기름이 연탄보다 싼데 연탄을 사용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쪽이 옳은가. 빛이라고는 한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숨조차 산소통에서 공급되는 산소를 통해 쉬어야 하는 막장속에서 허리도 펴지 못한채 탄을 캐는 광부들을 봤을 때 나는 가슴이 저미다 못해 끝내는 울어버렸었다.

하지만 석탄산업은 어차피 사양산업이 아닌가. 광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산업이고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용도를 밝히지 않는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느라 애꿎은 광부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내릴 것은 내리고 그 결과 전기료 관련산업제품의 물가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싶다. □

생활 상식

• 얼룩진 거울을 깨끗하게 : 거울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보통 걸레로 닦아서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기게 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손자국으로 거울은 지저분해지게 된다. 이럴때는 걸레에다 알콜이나 벤젠을 묻혀서 닦으면 새것처럼 깨끗한 거울을 만들 수 있다.

• 설탕에 꼬이는 개미예방 : 설탕이나 꿀을 넣어둔 병에는 흔히 개미가 그치지 않고 모인다. 이럴 때에는 넣어둔 병 주둥이에다 고무줄을 대어섯 줄 감아 놓아 본다. 개미는 고무 냄새를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그릇을 타고 올라가다가도 고무 냄새를 맡고 모두 도망가 버린다.

• 냉장고 흠이 생기면 : 냉장고나 세탁기같은 가전 제품은 웬만해서 칠이 벗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개구장자들이 못이라도 들고 냉장고의 표면에 흠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리는 녹슬기 쉽고 또 흠도 자꾸 커져간다. 이때 흠집에 매니큐어를 칠해 두면 안전하다. 큰 흠집이라면 에나멜을

칠하는 것이 좋다.

• 책에 물이 묻으면 : 책에 물이 묻으면 책갈피 사이에 화장지를 위 아래로 양쪽에 끼워 포개놓고 눌러 두거나 살짝 다림질을 하면 책장이 주글주글해 지지 않는다.

• 상표 레텔을 땄때 : 병이나 그릇에 붙어있는 재 회사의 상품 레텔을 떼는 쉬운 방법은 상품에 따라 다르다. 플라 스틱 그릇은 미지근한 물에 담그면 대부분 떨어지지만 그 래도 안떨어질 때는 식초를 탈지면에 묻혀서 레텔에 바르고 거칠거칠한 천으로 문지르면 쉽게 떨어진다. 가구에 묻은 레텔을 땄때도 마찬가지이다.

• 페인트 냄새가 심한 때는 : 집수리를 위하여 페인트칠을 한후 그 냄새로 인하여 머리가 아플 때에는 양파를 조개서 구석진자리에 몇개를 놓아둔다. 그러면 두 냄새가 서로 중화되어 아무냄새도 나지 않게 된다.